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가을학기 학생 모집 은혜평생대학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부설 은혜평생대학이 가을학기(9월 5일 - 11월 14일) 학생을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서양화, 수묵화, 서예, 사진, 컴퓨터, 스마트폰 반, 트럼펫, 색소폰, 키보드, 크로마 하프, 기타, 드럼, 생활영어, 건강댄스, 찬양 선교 한국무용, 성악, 풍선 아트 등이며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실시된다.

등록비는 100달러로 점심식사 및 졸업식 학예회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의: (714) 357-3003, www.gracecec.com

여름부흥성회 월서연합감리교회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신영각, 4350 Wilshire Blvd., LA, CA 90005)가 지난 16일 (목)-19일 '너 하나님의 사람' 주제로 전교인 여름부흥성회를 가졌다.

신영각 목사는 부흥회 둘째 날 '엘리아의 하나님' (왕상 18:30-40)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한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 쓰임 받기 전 겪는 변화와 훈련은 아프고 힘들다.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을 것" 을 역설했다.

문의: (323) 931-9133

미국의 칼 필레머 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장수한 사람 1000명을 만나보고 책을 써냈는데 그 중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바꾸려하지 말고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기 전에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남만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자신이 바뀌려는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야말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있는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應云何住云何降伏基心)'이란 구절도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느냐가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상대방에게 이렇게 변해라 저렇게 변해라 얘기하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괴곤해집니다. 인간의 성장이란 그저 키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생을 두고 끊임없는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 필레머의 리포트에서 장수한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

에서 모두 즐겁게 생활했으며 성격도 원만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매사 즐거워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내가 먼저 변하려고 노력해야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직장생활에서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 가십시오. 인간은 영원한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뭘 해주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에 나가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시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배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법당에 나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딸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야 비로소 한 나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내 아들딸만 챙기지만 부처님은 무량중생들을 자신의 외동아들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부부간에도 소통이 제일 우선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남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남에 대한 비난은 전부 남이 변해주길 원하는데서 생겨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내가 먼저 변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그동안 성장해온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보니 다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을 내십시오. 말보다 글의 힘을 쓸 수 있으니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십시오. 아내에게 편지를 쓰거나 남편에게 편지를 써봄으로써 새로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부가 만나 사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사회생활 하는 것 모두 법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사섭법(四攝法)' 이 있습니다. 1. 보시섭(布施攝) 2. 애어섭(愛語攝) 3. 이행섭(利行攝) 4. 동사섭(同事攝). 즉 내가 먼저 배플고, 사랑의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사회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굳기로 말하면 바위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내 아들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바위는 깨지면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지광 스님-

당신의 건강, 8체질로 지키십시오.

8체질 진단 \$50

단 한번의 방문으로 정확한 체질을 진단해드립니다.

체질 침, 체질보약(한국산 최상품)

16년의 임상경험과 노하우
자신의 체질에 확신이 없거나, 8체질 치료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8체질 생식
- 수맥파검사
- 8체질 다이어트
- 성장탕
- 골반 교정
- 아토피 연고

각종 통증, 위장병 - 참지마세요!

두통, 어지럼증, 이명, 오십견, 테니스엘보, 요통(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통풍, 위염, 속쓰림, 위산역류, 알러지, 비염, 불임, 전립선, 생리통, 불면증, 갱년기장애

아토피, 만성기침, 천식

다이어트-해독하면 빠집니다!

8體質 名家

체질나라 한의원

www.my8body.com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62.673.8397

월수금토 진료 | 각종 보험, 교통사고 문의 환영
18173 Pioneer Bl., #N, Artesia, CA 90701



원장 고진욱
8체질 임상경력 16년
중앙일보(체질과 건강) 연재